

2010

11월 7일

제18권 45호

마데데스

14년 14월 14일 14시 14분 14초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칼럼 column

간행하는 기도에 대하여 ⑤

신자는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에 속해 있다. 기도는 이 절대적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는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졸라대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거기에는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없다. 다만 포기하지 말라는 인간의 의지와 고집만 있을 뿐이다. 끈질기게 조르고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 그런 관계에 무슨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겠는가?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처럼 하찮은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다.

11-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고 말씀한다.

이 말씀대로 신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절대적 관계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 사랑은 아들이 악하다고 해도 자식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를 귀찮게 해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달라는 대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뱀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일까?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위협하고 해가 되는 뱀을 구한다면 분명코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면 된다 라는 비성경적인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 하신다. ‘먼저’ 라는 말은 순서의 의미가 아니다. 즉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다음에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먼저’ 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신자의 기도는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좋은 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오직 성령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도는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기도의 열심, 기도의 시간 등 인간적 조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정당한 기도이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자의 기도는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기도는 내 손이 아니라 내 속에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에 고민을 하는 것은 ‘그럼 나를 위한 기도는 전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건강과 물질적인 넉넉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감춤으로써 자신이 신앙적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솔직히 기도함으로써 여전히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는 것이 더 낫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421-9049 425-9049 070-7648-9049

<http://onlycross.net> 신윤식목사 sys5806@hanmail.net 019-832-9049

주일낮 설교



패역한 세대 마 17:14-20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말에 매료되어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에 ‘믿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과연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현대 교회는 ‘믿음’을 거의 만능으로 선전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말하고, 교회 생활에 등한시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과 관련하여 믿음만 있으면 만사형통을 이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주어짐으로써 병이 고침 받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힘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 정말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까? ◎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자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을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것을 믿음의 문제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패역한 세대 역시 믿음이 없는 것과 연관된 책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0절)는 말씀을 보면 마치 능력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은 이 말씀 앞에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산에게 명령을 해서 옮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 같은 일은 하지 못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을 옮기려고 했다가 실패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그 같은 일을 시도했다고 해도 성공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면 믿음이 커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산을 명해서 옮기는 것과 간질병을 고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큰 능력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산을 명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크기, 분량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작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산을 명해서 옮기는 믿음이 겨자씨로 비유된다면, 간질병을 고치는 믿음은 무엇으로 비유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을 낫게 하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을 명해서 옮기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산이 스스로 움직여서 이동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님을 생각한다면 과장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은 지각변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지구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단지 과장된 말씀은 아닙니다. 즉 산을 명하여 움직이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지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내용입니다.

◎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나,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물어보는 제자들이나 동일한 것은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병이 발작을 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 한시라도 아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을 것이고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 약이 있어서 증상을 약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간질병은 인간으로서 손을 쓸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퍼져있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면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은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한 것이고 나아가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자체를 두고 하신 책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영광의 나라에는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것으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간질병을 고치는 능력에만 호기심을 두었습니

다. 그래서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이유를 찾아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관심을 능력을 행하는 것에 두고 있는 것이야 말로 믿음이 없는 것이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위에서 있었던 영광의 사건을 알지 못한 산 아래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영광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심은 온통 믿음의 능력으로만 향할 것입니다. 병이 고침 받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믿음에만 관심을 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과 그 우월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한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신자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산을 옮길 수 없다면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을 가져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야 말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나라에 마음을 두고 소망하게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역사입니다.

◎ 무엇이 믿음인가 ◎

17장은 산 위의 세상과 산 아래의 세상으로 나뉘집니다. 예수님은 제자 셋을 산 위로 데려가셔서 예수님이 이루실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시야에서는 사라졌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계이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자들은 영광의 세계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광의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호기심을 둡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만을 구하거나 아니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대가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가?’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란 역사적,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 역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에 대해 반발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믿음이 왕성한 세대라고 할 수 있기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이 곧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아예 믿음이 없는 자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한 대로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어질 생명의 세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자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전 1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라는 말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산을 옮기는 능력의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자의 신자 됨은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거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병을 고치고, 심지어 설사 산을 옮기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이 신자 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 됨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안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생명의 세계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악함을 바라보고 나의 죽음을 절감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생명의 세계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이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될 뿐입니다.

주일 오후 설교



하나님의 공의

살후 1:5-9

(2강 10.10일 설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하자면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편안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 는 생각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유는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에 역사하신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에 핍박과 환난이 있게 하시는 것일까요? 7절을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는 장차 주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 환난을 받는 신자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게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핍박은 복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신자로 하여금 환난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써 마지막 때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말은 관심 밖의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편안한 삶의 방편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

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안식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구하는 것도 세상에서의 안식입니다.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말한 하나님은 환난을 받은 자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나타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착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신앙이 이런 차원의 것이라면 굳이 예수를 선택할 필요 없이 동서양의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윤리적인 삶이나 세상에서의 복과 천당에만 초점을 두는 신앙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신자는 형통하게 하고 신자가 아닌 사람은 힘들게 사는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죄인은 벌을 주고 의인은 상을 주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상실되고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찌 보면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잘살고 못사는 것이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잘 살고, 악한 사람이 벌 받는 원칙도 아닙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는 것이 곤란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도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에 환난 가운데 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을 핍박했던 자들은 영원한 고통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 복음을 던졌을 때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현상을 확인하려면 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아마 자기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산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적인 열정을 본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매주 몇 차례 행해지는 교회에서의 설교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관심사에만 편중하여 세상에서 잘되는 것에 집중된 설교로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사건에 마음을 둘 수는 없습니다. 종말론적 구원사건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은 다만 고통일 뿐이고, 따라서 가급적 회피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에만 집중한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이뤄질 참된 현실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자기와 자기 교회에 관심을 집중함으로 인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심에 대한 관심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뤄질 생명과 영광의 세계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경꾼의 자세로만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경꾼으로 살아도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구경꾼의 자세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열망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가난함입니다.

7절 중간부터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형벌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참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덤덤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뤄질 일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종말론적 사건임을 믿는다면 이런 마음은 자연스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나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복종한다고 여기는 우리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몰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고 하지만 복종치 않은 자들이었던 것처럼, 그런데도 그 같은 자신들의 실체를 까맣게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복종하는 것은 내가 부인된 자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에게서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이 복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피가 없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갚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에 행하실 하나님의 공의에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설교



아름다운 소식

나 1:9-15
(2장 10.27일 설교)

나훔 선지자는 앗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분명 듣기 좋은 말이나 부드러운 어휘는 아닙니다.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몽땅 다 죽여 버리겠다' 는 의미인데, 이것이 듣기 좋거나 부드러운 말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긴장되고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심판을 선포하는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말한 대로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까지의 내용이 모두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판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가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나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미담과 같은 것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분쟁과 싸움이 있는 곳에 뛰어 들어가 중재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을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로 이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을 화평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15절을 보면 "별지아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아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서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앗수르는 유다를 공격하여 위기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도 유다를 도울 수 없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이러한 앗수르를 그냥 두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앗수르를 진멸하고 다시는 유다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지 유다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앗수르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앗수르를 세워서 하나님을 망하게 하시고 유다를 공격하게 하여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사람

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삶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도구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이방인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여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심판의 날에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시각이 있는 신자는 세상의 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현실만 보면 세상의 것이 분명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세상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때가 있음을 가르치시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악인이 진멸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앗수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돈이 힘이라고 외칩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이 잘되는 것으로 돌려 드릴테니 영광 받고 싶으면 나를 성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 대해 '나는 너를 아는 바가 없다'고 하실 뿐입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 악을 피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한 일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 36장을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때 앗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유다를 향해 '너희들의 왕이 여호와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해줄 것이라는 말을 해도 믿지 말라'고 조롱합니다. 행복하고 앗수

르 왕에게 나오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우물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악한 것을 권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랍사게의 말은 지금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고 힘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행복하고 앗수르 왕에게 나오는 것이 현실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현실만 생각한다면 랍사게의 말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현실을 보게 하면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사악한 것에 해당 됩니다.

우리의 현실만 본다면 믿음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영광을 굳게 세우시는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무엇이 참된 힘이였는가가 드러날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신자는 마음에 그 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날이 과연 우리 마음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만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뒤죽박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의 날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 피한 자만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삶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마음을 뺏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세우는 때가 있음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심판을 단지 믿지 않는 자를 지옥 보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는 자기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피한 자기 백성을 알아주심으로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의미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도, 헛된 일도 아니라는 것이 심판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를 심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는 참된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 암 께
사도신경	다 암 께
찬 송	83장
교 독 문	32(시71)
기 도	조규연 장로
찬 송	179장
성경봉독	마 17:14-20
설교제목	패역한 세대(112장)
기 도	설 교 자
찬 송	266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3장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기도 : 이영민 장로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20

인도 / 신윤식 목사

사도신경	다 암 께
찬 송	267장
기 도	최두임 집사
찬 송	370장
성경봉독	살후 2:8-12
설교제목	거짓 것을 믿음 (5장)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33장
주기도문	다암께

다음주기도 : 왕경영 집사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 / 신윤식 목사

나눔 강해(4강)

사랑이여라

신윤식



붙잡고 있으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찬바람 찾아오니 하나 둘 떠난다.
바르르 붙잡고 있던 잎사귀
그것으로 나를 치장 했는데
미련 없이 놓아주려니
그건 아픔이여라

미처 몰랐다
붙잡고 있는 것으로 나를 치장할 줄만 알았지
그것이 곧 존재의 무거움인 것을
놓는 것이 가벼움이고 자유인 것을
취고자 하고 놓지 않으려는 것이
약취 풍기는 욕망임을 알게 되니
그건 슬픔이여라

쏟아지는 햇살 눈부시어
두 눈 감고 있노라니
차디찬 현실은 사라지고
뜨거운 피의 세계가 펼쳐지니
그건 기쁨이여라

아픔, 기쁨, 슬픔을 보고나니
아! 그 모든 것은
사랑이여라

교회소식

1. 예배 후에 제직회 모입니다.
2. 이영의 장로님께서 칠레에 다녀오시기 위해 8일 출국합니다.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낮	오전 11:00	어린이	오후 1:00
주일오후	오후 2:20	장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청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